

## 순수 패키지 디자인 그룹전 개최

###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신선한 청량제 역할 담당

한승문 / 세종패키지디자인연구회 회장

**제**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세종 패키지 디자인 연구회 (SPDS) 창업전이 개최됐다.

세종패키지디자인연구회는 지난 2000년 10월경 세종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나 강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패키지디자인 전공자들로 결성된 모임이다.

현재 연구회는 한승문(남서울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가 회장을 비롯해 총 5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창립전은 회원 39명이 1인당 1점씩 작품을 출품해 선보인 것이다.

한승문 회장은 "연구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의 모임이 아니라 무언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뜻 있는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점차 그 뜻이 확산되었고, 2002년 2월초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세종패키지디자인연구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매년 1회의 SPDS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홍보행사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전시회가 있지만 이번에 개최된 제1회 창립전은 오직 패키지 디자인만을 위한 순수한 창작 그룹전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승문 회장은 "그 간 개최된 디자인 관련 전시회는 주로 그래픽 위주로 패키지디자인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패키지디자인이 그동안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첨병 역할과 함께 패키지디자이너 자신 또한 패키지디자인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작품 제작에 몰입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패키지디자인을 사랑하며 이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뜻을 같이하는 세종대 출신자들이 모여 무언가 새롭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취지 하에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한승문 회장은 현재는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인지 한승문 회장은 현 패키지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연히 패키지디자인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꼽았다.

“우리나라 4년제 및 2년제 대학을 합치면 약 200여 대학이 있습니다. 이 중 산업체에서 활동중인 많은 전문가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실무 위주의 이론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채우고 있지만 이는 패키지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대학에 교수로서 활동중인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좀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문 회장은 “패키지디자인은 실제적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며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최종 얼굴을 만들어내는 매우 상징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그동안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패키지디자인이라는 것을 그저 제품을 싸서 보관, 유통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것은 관광지의 토산품이나 특산품 등에서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 나라의 경쟁력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한승문 회장은 “창의성 있고 부가가치를 살릴 수 있는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좋은 인재를 발굴,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

며 이를 위하여 산업체와 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 고루 저변 확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이 체계적인 기반이 잡히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전시회 또한 처음 갖은 대외적인 행사로 회원간의 참여도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시를 위한 적절한 장소 물색과 로고, 팸플렛 제작 등 어려움이 많았다.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낮에는 각자의 사업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밤에는 출품작을 완성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한승문 회장은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달도 채 안되는 신부가 또한 아기를 출산한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초보 엄마가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출품하겠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통해 연구회의 일원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회원들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테마전 및 학술적인 행사 또한 심도 있게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승문 회장은 “첫 시작이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또한 많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국내 패키지디자인 분야에 조금이나마 신선한 청량제 같은 자극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말을 맺었다. ☺

권해진 기자